

● 사회 - 복지정책 재편인가 폐지인가

복지병 걱정되어 사회복지 투자 안된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서유럽과 미국 등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주요 원인을 과도한 정부부분의 팽창에 의한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고, 건전한 개인주의 정신의 회복, 즉 경제적, 사회적 자유방임주의와 자원활동, 그리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위기극복의 근본적 처방책이 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일반적 신념이다. 특히 국가의 사회복지 공급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논리는 사회복지가 사회적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문에 집중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을 때 생계를 보장해 주는 기능으로 인해 파업과 임금인상을 유도하며, 과도한 세금으로 투자동기를 위축시키고, 노동의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과 경제학에 입각한 논리는 경험적으로 확증하기 힘들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복지가 장기적인 저성장·고실업 사회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가 경제의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인간자원을 보존, 개발시켜 주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구조 속에 빈곤, 실업 등 구조적인 사회적 불행에 대한 책임을 무지, 나태 등 개인 탓으로 여겨왔다. 이제 IMF 체제와 대량실업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실업이 결코 개인의 탓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 위험을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발생의 근거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속성장의 신화에 몰려 성장제일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불행과 위험 및 경고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를 답보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소홀히 한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는 계급과 이익집단의 이해표출이 급격히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었다.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집단이 조직화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자 역시 주택 문제 해결과 사회보험 개혁 등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국민들의 복지요구를 주어진 재정규모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의 부담이 너무 컸으며 국경 없이 펼쳐지는 경제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부각된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시장공급을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은 현재권 하에서 사회복지부문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이 결과

계층간, 지역간 사회복지 공급의 불평등을 가져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고통을 겪는 상황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 실태를 보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의 어느 것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와 임시직·일용직 노동자의 수가 200만을 헤아리며, 아직도 '복지병'이 우려되므로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리고 있다. 이는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비만이 걱정되어 식량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리석은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낭비적이다. 그리고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등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은 미흡한 채, 냉전과 고성장을 전제로 국가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우리 나라 사회복지비 규모는 1993년 기준으로 GDP 대비 3.1% 수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터키의 7.1% 수준의 절반도 안되는 극히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금 IMF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성장·저실업 구조에 의존하여 짜여진 이전의 허약한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과감히 변화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하여 제반 사회적 불행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및 기존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 등을 통한 총체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사회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조 홍 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언론 - 신자유주의 체제의 언론시장 개방

과감한 투자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IMF한파로 온 사회가 얼어붙어 있다. 수은주가 예년보다 한달 가량 앞서 여름 더위를 알리고 있지만 정부, 은행, 재벌, 기업, 노동자, 가정 모두가 IMF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도 IMF의 긴 터널을 지나가기는커녕 그 입구에서 맴돌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기본토대가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상당기간 동안 저성장, 고금리, 고실업, 고세금, 고환율 등에 의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같은 경제적 고통이 단순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변과 같은 경제위기는 우리의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선을 나라 바깥으로 조금만 넓혀 보면 그 근원적인 것은 도도히 불결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여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경쟁에서 이긴, 그 과실을 차지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은 단일화되고, 자본, 인력,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인종과 국적의 차별없이 세계인 모두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기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규제화,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등의 구호가 등장하게 된다. 무한자유경쟁, 적자생존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국제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언론은 과거에 국가이익을 위해서 외국인에게는 소유와 경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개방화정책에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는

언론시장을 개방하였다. 인쇄매체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신문발행업과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25%이내에서 허용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언론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5일 외국인 투자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투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 비율을 신문발행업의 경우 33%미만, 정기간행물 발행업의 경우 50%미만까지 허용기로 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17일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WTO에 약속한 일정보다 2년 앞당겨 통신시장을 확대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간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통신분야는 1999년 상반기부터 외국인들도 국내통신업체의 지분을 최고 49%까지 매입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17일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WTO에 약속한 일정보다 2년 앞당겨 통신시장을 확대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간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통신분야는 99년 상반기부터 외국인들도 국내통신업체의 지분을 최고 49%까지 매입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17일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WTO에 약속한 일정보다 2년 앞당겨 통신시장을 확대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간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통신분야는 1999년 상반기부터 외국인들도 국내통신업체의 지분을 최고 49%까지 매입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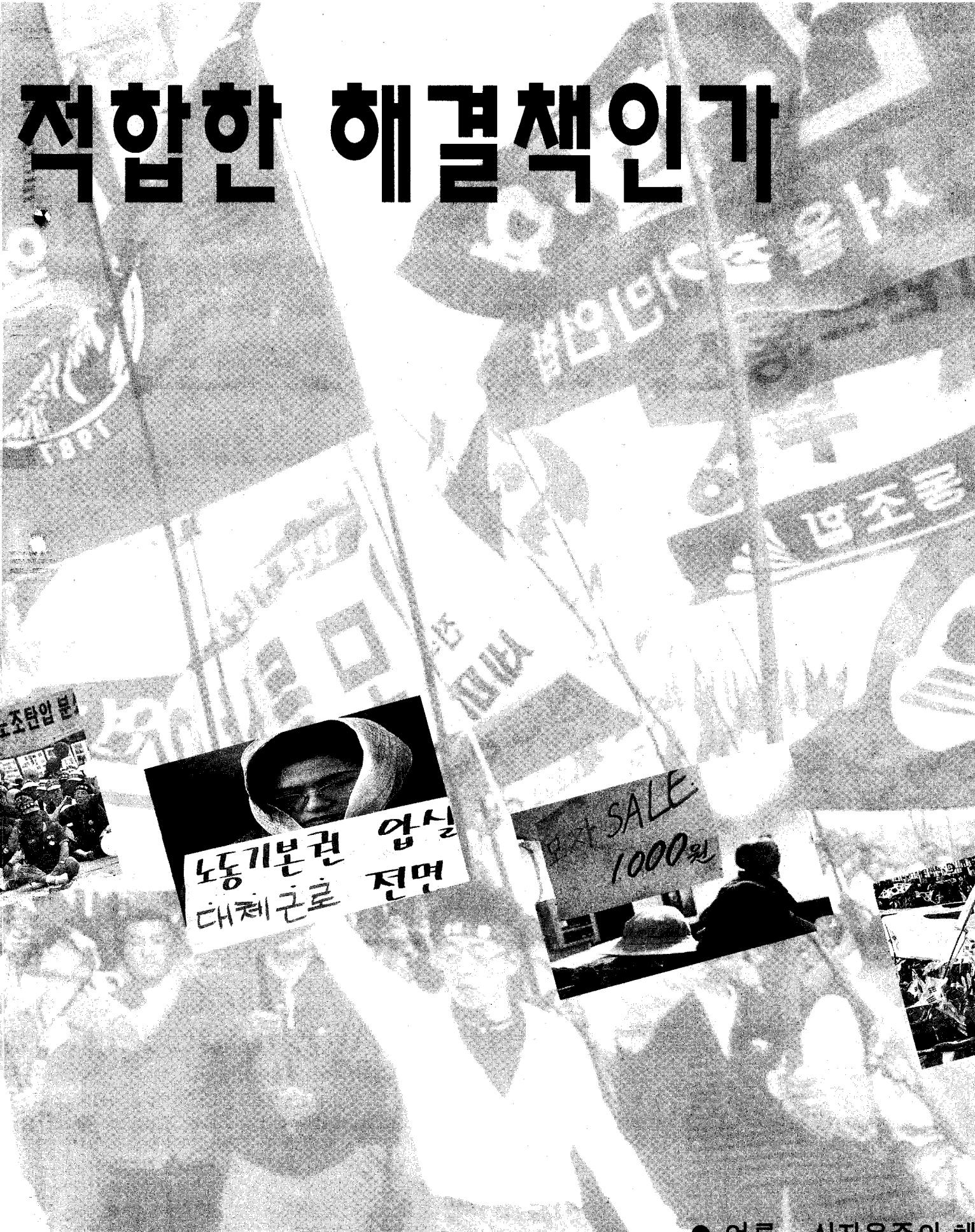
방송의 경우는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에게 15% 이내에서 투자가 허용되고, 프로그램 공급업(gp)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3월부터 15% 이내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아직 외국인들에게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방한한 루퍼트 머독에게 위성방송참여를 촉구한 정부 당국의 태도를 보면 방송시장의 개방도 멀지 않았음을 간파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일본의 대중문화도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우리의 언론 시장도 거의 다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우리의 언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만 한다. 국제 경쟁력이 없는 매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언론인들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7년 주요 중앙일간지들 가운데 독자 경영을 한 신문은 2개사 뿐이다. ABC제도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론경영의 투명성도 없다. 신문

과 방송의 편집 및 편성, 경영기법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영향권안에 들어 있다. 뉴스는 지금도 AP, WRI, 로이터, AFP 등 세계 열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방송의 경우는 무궁화 위상이 발생되어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방송법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공·민영 방송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워지던 방송들도 작년에는 광고수입 격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어느것 하나 자신있게 국제시장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야 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언론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길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것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경쟁력 있는 좋은 신문,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세계시장에 내놓아야 이겨야 한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양질의 언론상품은 누가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국제 감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실한 언론인들의 몫이다. 지금 언론 구조조정이 개혁 대상의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세계의 언론, 특히 방송과 영상분야에서는 새로운 질서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른 IMF사태를 언론계에 서도 맞이할 지도 모른다.

이 광 재
(언론정보학부 교수)



상처와 절망 그려

부들은 힘을 모아 앨버트홀에서 연주한다. 연주 후 지휘자 대니는 언론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 자신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보수당 정부를 거침없이 꾸짖는다.

'몬티'는 한때 잘나갔던 영국 철강도시 셰필드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해고된 철강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몽땅 벗는다'는 뜻의 영국 속어 '폴몬티'는 실직자 여섯 명이 궁여지책으로 스트립쇼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해프닝을 담고 있다. 중년남자들의 '스트립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트립쇼'는 희망과 야망, 기쁨을 박탈당한 그들이 다시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벌이는 몸부림이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위선' 혹은 '자존심'을 벗어버리는 행위이며, 발가벗은 자신을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신자유주의체제는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낳았고 안락의 인간군상, 삶의 편리 등을 담은 영화나 소설이 등장한다

인정하는 과정이다. 한때 전문직 철강노동자였으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실직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딱한 모습이 그려진다. 이혼당하고 아들 양육비를 댈 돈이 없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성적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 실직당한 사실을 아내에게 밝히지 못하고 6개월째 계속 출근하는 중간간부 등 이들의 상황은 참으로 막막하고 현재 우리 현실과 비슷한 것이다. '트레인스포팅'은 마약과 범죄에 찌들어가는 젊은이들을 통해 영국사회의 막막한 현대사회를 그렸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주인공들은 중심에서 뒤흔쳐져나온 젊은이들이다. 평범하고 건전한

며 성실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지나는 가치를 동경하기도 하지만, 취업이나 현대적인 생활,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에서 소외되고 이탈된 모습을 담았다. 주인공은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어"라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마약에 취해있을 때 유일한 고민은 어떻게 마약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 뿐이다.

이 영화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미화되는 자본주의적 생존경쟁의 장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떨어져 나가 자기자신의 삶을 파괴할 자유가 있다고 절규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사실 중심에서 뒤흔쳐져나온 주변인들의 절규다. '마티유 카소비츠 감독의 '증오(La Haine)' 역시 젊은 주변인들의 고통과 이유있는 저항을 담고 있다. "고층건물에서 떨어진 사람 얘기 알아? 떨어지면서 중얼거렸대, '아직, 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 꼭 우리 신세 같지?" 추락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 어떻게 착륙하느냐지"라는 대사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인종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파리 외곽지역 방리유에 사는 세 청년의 하루 동안 생활을 그렸다.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을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제리 맥파이어'도 신자유주의경제체제의 미국사회 소프초산업들을 다룬 영화다. 유능한 스포츠 매니저 제리 맥파이어는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는 제안을 회사에 제출한 후 어이없고 비인간적으로 해고된다. 경쟁사회에서 힘겹게 싸워야 했던 맥파이어가 좌절하지 않고 일을 해나가게 해주는 힘은 신의와 성실성이라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영화속 현실은 단순한 사회반영이 아니라 사회의 쟁점과 그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마 정 미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1기)